전당대회 '계파활동 금지' 효과 있을까

새정치 혁신위 추진…후보자 선거운동도 제한

중도·비노측에선 "세 확대 어려워질 수도"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혁신위)가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특정후보 캠프 참여 등 각종 계파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새로운 정치와 정치혁신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줄 세우기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파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등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고 말했다.

계파활동 금지 대상자에는 당 소속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도 포함됐다. 의결안은 또 전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대면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 의원은 "이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의원총회 의결을 추진하고 동시에 관련 당헌과 당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오는 17일 비대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전대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지만 계파 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을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중도 및 비노세력에서는 혁신위의 개혁안을 크게 반기지 않는 눈치다.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에 소속된 한 의원은 16일 "진짜 다 그렇게(계파 활동 금지) 하면 좋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개혁안 같지만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친노(친노무현)계의 한 의원도 "하나마나 한 소리"라며 "캠프 참여를 금지한다고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당 안팎에선 혁신위의 계파 활동 금지가 친노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노진영에는 역으로 불리한 지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노계는 기본적인 지지세력의 응집력과 조직력이 막강한데다 현재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문재인 의원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만큼 굳이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도 자체 세력 규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후위 그룹을 형성하는 중도와 비노 진영은 이번 전대에서 '문재인 불가론'의 깃발 아래 후보 단일화 등 합종연횡을 도모해야 승산이 있는데 계파 활동 금지 탓에 세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평론가인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는 "계파 활동 금지는 비노 의원들의 적극적 연대를 막는 효과가 있어 현재 최대 지분을 가진 친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문재인 비대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지역위원장 경선 '혈투' 예고

광주 서을 등 7곳 경선 최종 확정…ARS투표 불만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4일 1차 지역위원장 경선 지역과 경선 방법을 발표하면서 후보자들간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당장, 경선 방법을 두고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이날 광주 서 을, 서울 강서 을, 동작 을, 은평 을, 송파 병 등 4곳과 경기 성남 중원, 인천 연수 등 총 7곳을 경선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대체로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온 원외 인사들 간의 경쟁이 붙은 지역이다.

새정치연합의 텃 밭인 광주 서 을은 컷-오프를 거쳐 조영택, 정상용 전 의원과 김하중 변호사 등 3명으로 후보군이 좁혀졌지만 경선 룰을 두고 기자회견과 성명전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강서 을에서는 예정대로 현역 비례대표인 진성준·한정애 의원 간의 '빅매치'가 이뤄지게 됐다.

동작 을에서는 비례대표인 최동익 의원과 지역 토박이인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송파병과 성남 중원에서는 남인순, 은수미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져 지역 인사들과 맞붙게 됐다.

경선 룰과 관련, 중앙당 선관위는 권리당원 중 올 1월부터 10월 사이에 3차례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 지역위원장 선출 권한을 주기로 했으며, 선출 방법은 ARS 투표로 진행키로 했다.

현장 투표를 하면 경선 비용이 증가하고 동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조강특위 설명이다. 이달 말까지 경선을 마무리해 12월 중순까지는 모든 지역위원회의 개편 대회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강특위가 '계속 심사 지역'으로 분류한 곳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현재까지 결정 보류 지역은 총 14곳으로, 순천·곡성과 경기 고양 덕양 을, 전북 남원·순창 등이 대표적이다.

순천·곡성에서는 김광진 비례대표 의원, 서갑원 전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 정표수 전 공군소장 등이 치열하게 겨루고 있어 쉽게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덕양 을은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두영 전 지역위원장에 맞서 '김근태 인맥'인 문용식 전 인터넷소통위원장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의 이태규 당무혁신실장이 도전장을 내면서 계파 대리전이 뚜렷하게 구분된 곳이다.

남원·순창은 무소속이었다가 새정치연합에 합류한 강동원 의원의 지역구지만 이강래 전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다른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예외 없이 지역위원장에 인선됐다는 점에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주승용 "이순신대교 구간 과속·과적 단속 강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량 흔들림 현상으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이순신대교에 구간 과속 단속의 조속한 도입과 과적 단속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10월26일 교량 흔들림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점검 결과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포장공사를 하면서 쳐놓은 가림막이 강풍을 막으면서 발생한 와류현상 때문으로 밝혀졌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주탑 간 거리가 먼 현수교의 특성상 40t 이하의 무게와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대형차량의 과적과속으로 도로포장의 밀림, 균열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 의원은 이순신대교의 운영주체가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로 분산돼 있어 과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과적 단속 적발은 81건에 그쳤다.

이에 주 의원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과적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주영순, '치안 사각지대' 신안군에 경찰서 신설 추진

염전 노예 파문 등 치안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신안군에 경찰서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은 지난 13일 2015년도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신안경찰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신안에는 현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국민에 대한 경찰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 288개 시군구 중 경찰서 미설치 지역은 총 15개다. 이중 8개 지역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남 신안을 비롯한 6개 지역은 개서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주 의원은 "경찰서 개서지역 선정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장 내년부터 신안경찰서 개서를 위해 안행부와 기재부간 협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우선 1순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도 "내년도 협의를 통해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본격 활동

어제 첫 회의… 전병헌 위원장 "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 계기"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국내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위원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강석호·김동완·김명연·김한표·이노근·이명수·함진규·황인자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 김민기·신정훈·유은혜·은수미·전정희 의원이, 정의당에서 정진후 의원이 각각 활동한다.

앞서 여야는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특위는 내년 4월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전병헌 위원장은 16일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는 속에 안전과 관련한 인식은 물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법률적인 면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일반 상임위보다 더 회의를 자주 하며 내실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샘처럼 솟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 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11. 14(금)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① 하반기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②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 분석과 전망
③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공개
④ 토지 大전망-토지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⑤ 3천~1억 소액투자로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 법 백 헌 학개론 임진택 공 법 이강열
중개법 홍덕기 공시법 안규채 세 법 임기원

개강 11月10日 주 부 반 11月~12月 기초과정 전 과목 강의 합니다. 성 인 반 직장인반 인터넷 동영상 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2명 배출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합격을 위한 책임강의! 모르면 일때까지!
· 기초과정 → 11月 ~12月 · 기본서 iii → 5月 ~ 6月
· 기본서 i → 1月 ~ 2月 · 문제풀이 → 7月 ~ 8月
· 기본서 ii → 3月 ~ 4月 · 총 정 리 → 9月 ~ 10月
매월 1일은 정규 개강일 입니다.

광주새롬학원에서 제 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상담사 특강(주 · 야)

학원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창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본원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2층 ☎361-8111

공고 제2014 - 43호

2014년도 고경력과학기술인 인력등록 및 일자리·일거리 수요조사 공고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기술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국가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 「고경력과학기술인 인력등록 및 일자리·일거리 수요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사업목적

○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일자리·일거리 정보제공/알선
○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풍부한 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연계하여 애로 해결 지원
○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출연연구소, 공공기관, 협·단체 등의 평가·자문·교육·심사위원 등으로 추천하여 다양한 활동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RSEC)
※ RSEC: 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Center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이 퇴직후에도 다양한 활동기회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13. 8. 27에 개소하였습니다.

○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기 한	등록방법
고경력 과학기술인	• 인력 DB 등록	~2014년12월31일(수)까지	•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포털(www.rsec.or.kr)을 통한 등록
기업, 공공연구기관, 협·단체	• 일자리·일거리 등록 * 일자리: 현장근무, 고용 ** 일거리: 기술자문, 실험분석, 엔지니어 교육, 기술경영 상담, 기술의 사업성 평가, 기술보고서 작성, 기술영업, 기술통역 등		

○ 참여자격
- 고경력과학기술인 : 퇴직(예정) 과학기술인으로 구직 혹은 일거리 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자
※ 단,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자(재직자)는 일자리 신청불가
- 활용기관 :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출연연구소, 공공연구기관, 협·단체 등

3. 참여방법

인력등록 (고경력과학기술인) →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포털(www.rsec.or.kr) 접속 → 개인회원 가입 → 인력등록 → 일자리·일거리 조회

일자리·일거리 수요조사 →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포털(www.rsec.or.kr) 접속 → 활용회원 가입 → 일자리·일거리 등록 → 인력조회 및 인력추천 요청

○ 접수기간 : '14. 12. 31(수)까지

4.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주 소 : (137-888)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 전 화 : 02-3460-9123 - 이메일 : rsec@koita.or.kr

5. 기 타

○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등록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은 지속적으로 본 센터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 고경력과학기술인 등록자와 일자리·일거리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지원포털을 통한 상호연계 및 센터상담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일거리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포털(www.rse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사업은 "작은 희망을 모아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